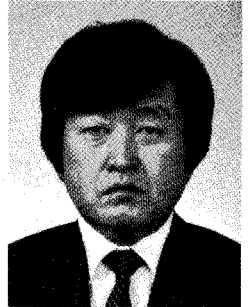


# “과육은 반드시 불행의 초래 한다”



유 병 목  
풍진화학공업(주)  
사료사업부 영업이사

〈이것이냐 저것이냐〉

인간은 자유의 주체다. 자유가 있는 곳에 선택이 있고 선택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의 구체적인 표현은 선택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경쟁 체제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성과 미래와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슬기로운 선택이고 모든 축산업계의 안정적인 발전의 도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업계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남겨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 학계는 새로운 학문과 기술 이론을 남겨야하고, 사료업계는 저렴하고 고효율성의 좋은 품질을, 약품업계는 약효있고 질병 예방 치료가 잘되는 것을, 종계 부화업계는 혈통이 좋고 우량한 품종을, 식품가공업계는 가격이 싸고 맛과 기호성이 좋은 것을, 축산기구업계는 사용이 편리하고 노동력을 줄일수 있는 것을, 생산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축산물을, 유통업계나 중간 상인들은 마음을 비우고 유통 질서의 정착을, 업계 종사하는 AS 요원과 기술보급 지도자들은 양축가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책과 애프터서비스를, 축산전문지나 신문들은 업계 전 분야별로 홍보 발전할 수 있는 사실내용을 활자화하여 보도하는 것을,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보다 나은 축산 정책을 남기고, 업계 전문가가 한뿌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발전을 만끽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위대하고 훌륭한 것을 남기려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조일석의 산물이 아니다. 지금은 어떠한가? 기로에 서 있다.

육계가격 3개월째 폭락, 원유생산 과잉 소비둔화 낙농업계의 어려움, 양돈사육규모 총계 402만두 모돈61만두로 최대 육박 실제는 450만두가 넘었다. 이로 인하여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축산 불행의 타개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축종별 생산소비 수급안정 대책의 중요성이다.

축산물은 인간의 건강과 생존이 직결되는 기본필수품으로써 이전 축산물 소비 성수기의 폭이 좁아졌다. 수급의 영향에 따라 가격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을 물건너 남의 일과 같이 보고만 있을건가. 관련업계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때다.

둘째,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보급하자.

80년대 경제발전이후 식생활이 큰 변화를 보였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육류와 계란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공해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기호성이 높고 건강식품을 찾는 요즈음 계란에 계분이 묻었다든가 우유속에 대장균수가 많았다든가 닭고기에서 냄새가 난다 하면 소비자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는가? 어느 유치원생이 목장에 자연학습을 갔다 젖을짜는 젖소 뒷 다리부분에 우분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우유를 안먹겠다는 것이 아닌가. 계란 한개 우유 한방울이라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품이야 말로 소비 축진의 밑거름이 된다.

셋째, 축산물 품질을 높여야 한다.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는데 90kg 규격돈 한마리에 지육은 불과 20kg밖에 수출 못하는 실정이다.

넷째, 축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어린아이들이 계란이나 육류를 그냥 조리하면 잘 안 먹어도 계란을 빵에 많이 넣는다든가 육류를 햄 소세지로 가공했을 때는 잘 먹듯이 그리고 70년대중반 이후 사과가 꺾(밀감) 소비 때문에 사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보라. 꺾은 어느장소든 칼을 들지 않고도 껍질을 쉽게 벗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소비 생산 전망예측과 홍보활동에 적극성이 필요하다.

소비자 수요의 흐름 축산물가격 종계 병아리 사료생산량 등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서 홍보할 값어치가 있다.

양계협회에서 시행하는 양계속보 요리강습회 여고생 요리실습후원 건대 축대생 우수먹기 캠페인 등은 좋은 홍보 활동이다.

C(씨)주류 메이커의 술은 너무 잘알고 있는데서 꽤 많은 선전비를 투자하여 홍보 하느냐고 물었더니 기성세대보다 자라나는 예비소비자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한다.

여섯째 수출의 제도적 정착지원 확대다.

87년도 상반기중 일본에서 돈육 수입 물량중 대만에서 50%이고 한국에서는 0.7% 수출 뿐이다. 지역적 수송이 불리한 대만을 감안 할 때 얼마든지 확대할 여건이 주어졌고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

일곱째 사료판매 질서의 확립이다.

사료 메이커나 판매 대리점에서는 영업 정착에 입각하여 판매하고 있겠지만 업계 불경기 초래는 판매만 하면된다, 가축만 농장에 있으면 사료를 공급한다는 식의 무분별한 경영 불합리로 인하여 수요공급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된다면 업계 모두가 업계를 떠나야 될 것이 아닌지.

여덟째 축산물 생산품 유통질서 확립이다.

생산만 있고 판매는 없게서야 농장에서 육계 한마리가 8백원~천원인데 소비자는 2500~3000원이 웬말인가?

이젠 한국의 축산도 이론 기술 경영등 경험을 축적으로 내실있는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미국의 배합사료 생산 실적을 보면 1978년도 산란사료가 12,407천톤 육계사료가 15,480천톤 생산인데 1985년도 산란사료 12,283천톤 육계사료가 18,641천톤 생산을 보면 육계는 20%증가한 반면 산란계 사료는 그대로 포함세로서 얼마나 안정적이냐?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영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축산업이 겨우 문턱을 넘어설 때 일년도 전체 사료생산이 138만톤 85년도는 양계230만톤 양돈192만톤 낙농

99만4천톤 비육120만톤 합계645만톤 무려4.7배가 증가하고 86년도 생산이 767만톤 일 때 5.5배가 증가하였다. 축산물 1인당 소비를 보더라도 1975년 계란85개(60g/개) 닭고기1.7kg 쇠고기2.0kg 돼지고기2.9kg인데 86년도 계란소비133개 닭고기3.2kg 쇠고기3.1kg 돼지고기는9.0kg가 소비되었을 때 총육류 소비는 15.3kg이다. 2천년대가서는 “축경영” 축산물 수요 예측 조사분석보고에 의하면 축산물 연도별 추정수요량에 있어서 실질소득 증가율이 1988년~2천년까지 3~4% 적용 할 경우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예측 기간중 연평균 4.7%씩 전망할 때 2천년에 가서는 1인당 계육은 5.0kg 계란은 187개가 소비 된다는 것이다. 85년도 세계인구 1인당 육류 소비량이 평균 53kg이다. 우리나라는 14.4kg 일본은 1983년도 23.8kg이고 계란은 240개 닭고기 8.6kg이며 대만은 10년 전보다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100~140%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닭고기 19.7kg 계란 185개 돈육35kg 쇠고기 1.7kg 소비되고 10년전보다 계란은 88.8% 닭고기는 118.9% 증가하였다. 앞으로 축산업의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GNP 상승으로 국민들이 축산물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볼때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가축의 사육두수도 현재에 비해 무려 2~3배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안정적 수급계획 바탕위의 발전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축산물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데도 이를 뒷바침할 제도와 조직이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축산업이 국제적 경쟁력 경영 기술 보급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 우리 축산인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안정적 수급 방향이 역시 마련 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다.

끝으로 과육을 버려라.

과육은 반드시 파멸을 낳고 불행을 초래한다. 개인이건 기업체건 축산업자건 국가건 과육을 하면 반드시 파멸이 온다. 정치건 경제건 축산업이건 과육에 빠지면 반드시 붕괴한다.

난로가 과열하면 화재가 나기 쉽고 자동차가 과속하면 사고를 일으키고 돈을 과용하면 빚만 남게된다. 화초에 비료와 물을 많이주면 뿌리가 썩지오. 양계업, 육계업 양돈업이든 무리한 확장 불합리하게 경영할 때는 파멸을 초래한다. 과육은 버려라. 과육은 패망의 어머니요 불행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축산업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축산 진흥의 발전과 내실 있는 경영 합리화로 총력을 다할때가 왔다고 본다. **양기**